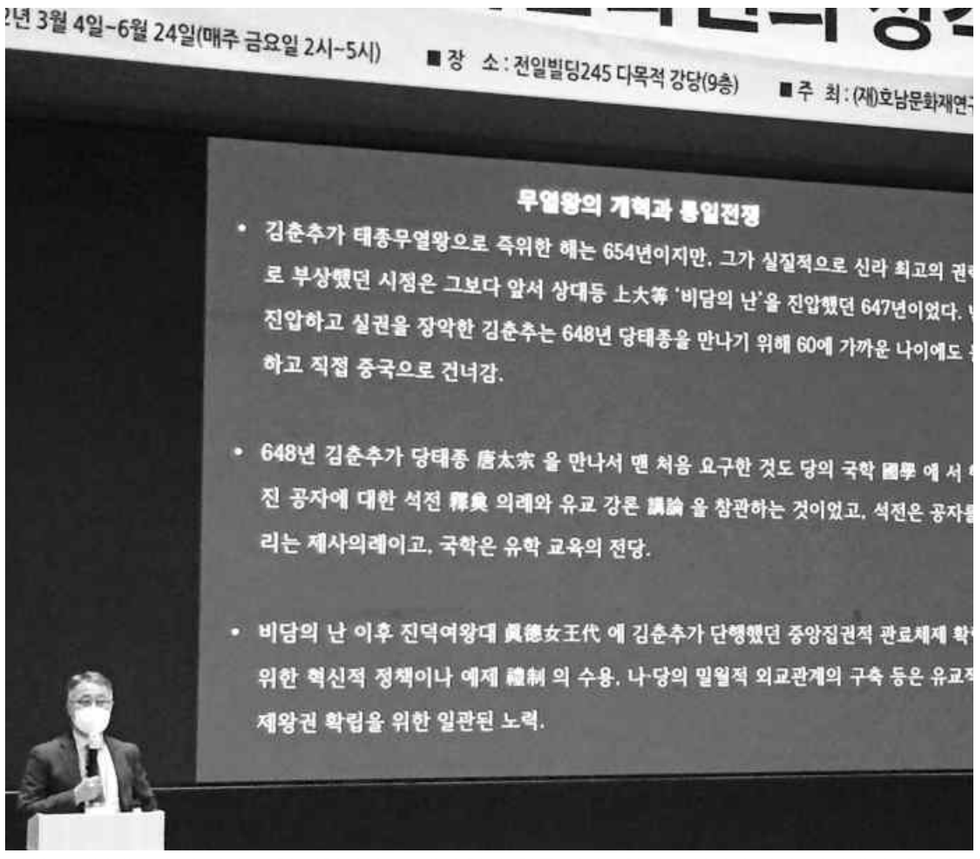
"경주 역사문화도시, 지역민 참여·열정이 원동력"

광주일보·호남문화재연구원 문화강좌

이성주 경북대 교수 신라권 강의
문화재 개발·활용에만 치중 경계
뿌리·역사적 실체 규명 연구해야



이성주 경북대 교수가 지난 22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강좌에서 강연하고 있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참여와 열망이 바탕이 됐습니다."

이성주 경북대 교수는 지난 22일 광주일보사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신흥남)과 공동개최한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신라역사문화권 강좌에서 "경주가 신라 천년 도읍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이 있다"면서도 "사업유치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역의 저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한 게 대표적이다.

경주에서는 현재 지역의 여망이 결집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35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예산 3조3533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여기에다 지난 2014년부터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도 945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등을 핵심 유적으로 정해 집중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교수는 마한 역사 문화권 사업에서 경계할 내용도 들려줬다. 문화재 개발·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지역의 뿌리와 역사적 실체규명을 위한 연구와 문제 해결보다는 '개발 사업'에 편중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제강점기에 경주에서 문화재 발굴이 추진됐으나 한반도 통치를 위한 역사적 근거 찾기, 문화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역시 1970년대 국가주도로 경주관광종합 개발계획(1972~1981년)이 추진돼 일정부문 학술적으로도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개발위주 국책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천마총(1973년), 황남대총(1974~1975년) 발굴은 화려한 부장품을 발굴하고 노출시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경주지구 유적발굴은 국토종합계획과 경주시관광종합 개발계획의 하위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연구와 역사 실체 규명보다는 국가,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그는 경주지구 발굴은 남북한 대치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70년대 북한이 대대적으로 문화재 발굴에 나서는 것과 맞물려 대응차원에서 추진된 면도 있다는 것이다. 즉, 남한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이 강좌는 지난해말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馬韓) 역사문화권에 광주권역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광주일보사와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지역민들의 지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고 타 문화권과 비교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오는 29일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가야역사문화권),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마한역사문화권),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탐라역사문화권), 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예맥역사문화권), 차용걸 충북대 명예교수(중원역사문화권), 정재윤 공주대 교수(마한역사문화권 개발방안) 등이 차례로 강단에 선다. 지난 강좌는 유튜브(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호남문화재연구원 기획사업실(전형민 061-383-3640).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기자협회, 2022년 봄 체육대회 성료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는 지난 23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천연잔디 구장에서 2022년 봄 체육대회를 열었다. 체육대회에는 광주·전남 각급 기관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축하 속에 18개 지회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단체줄넘기·줄다리기·장애물 릴레이 달리기 등 명랑 운동회 형식으로 펼쳐졌다. 광주일보는 3위를 차지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 목포해양대와 풍력·해양에너지 육성 협약

〈녹색에너지연구원 제공〉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 21일 국립목포해양대와 풍력·해양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술교류 및 정보 교환 등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주동식 연구원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대학 및 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연구원과 목포해양대는 풍력 및 해양에너지 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공동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 시설 및 자원의 공동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한 학술교류와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도 역점시책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이 탄력을 받게 되고, 풍력·해양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식 연구원장은 "풍력·해양에너지 분야 업무협약으로 관련 산업육성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55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55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11		00 크레이지 러브(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과학교실 5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 시즌2(재)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연중 라이브(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로컬식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꽈배기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크레이지 러브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30 로컬식탁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매거진	
12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튜디오 K(재)	30 포비든앨리 시즌2	00 SBS 스페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뽀롱뽀롱 뽀로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07:30 엄마 까투리
07:45 띠띠뽀 띠띠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출동! 슈퍼윙스
08:50 슈퍼두퍼 잉글리시
09:0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09:20 꼬마버스 타요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5:50 EBS 다큐프라임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05 클래스 e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5:40 지식채널e
15:5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2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7:45 출동! 슈퍼윙스(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9:00 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5일 (음 3월 25일 戊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초석이 될 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운로라 할 수 있겠다. 48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가히, 괄목상대할 만하다. 72년생 당연시 해왔던 바에 변수가 생긴다. 84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96년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21, 80

丑 37년생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 나아가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9년생 관심을 가져왔던 바에 효과가 드러나리라. 61년생 타산지석으로써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73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에까지 수월할 것이다. 85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97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36, 86

寅 38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50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 62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74년생 유동적이니 만큼 매사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98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65

卯 39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51년생 머지않아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니라. 63년생 비슷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쇄하는 것도 좋다. 75년생 편의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87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들여라. 99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64

辰 40년생 알면서도 매번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52년생 평소에 쌓은 공이 비상시에는 약이 될 것이다. 64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것까지는 없다. 76년생 고행의 길이 긴 하지만 장래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88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러운 형태로 비화되리라. 00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6, 81

巳 41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53년생 알면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65년생 판이한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77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될 뿐이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89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하게 될 것이니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 01년생 소강상태를 보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2, 55

午 42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으리라. 54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66년생 순리대로 풀어 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78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90년생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02년생 주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음이니라. 행운의 숫자 : 35, 87

未 43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성국이다. 55년생 일시적 판국이니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67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79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이다. 91년생 너무나 비슷비슷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03년생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47, 70

申 44년생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 56년생 이리저리 잘 궁리해 본다면 훨씬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68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80년생 갑자기 서두른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92년생 재정비에 확실히 신경을 써야 한다. 04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행운의 숫자 : 08, 89

酉 33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45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 번 낫다. 57년생 흑과 백만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회색도 있음을 분명히 알라. 69년생 난해한 현태 앞에서 초연해질 필요가 있도다. 81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93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행운의 숫자 : 01, 62

戌 34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든 법이다. 46년생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덕이 되는 법이다. 58년생 듣던 바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리라. 70년생 넘치는 기쁨의 경행을 향유하게 되리라. 82년생 시시각각 변화하는 판국이니 형세의 범위를 조절하라. 94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2, 92

亥 35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47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 59년생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적응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83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도다. 95년생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행운의 숫자 : 31, 88